

## 척수손상 미혼남성의 성(性)\*

한 경 순\*\*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성(性; Sexuality)이 없는 인간은 없고, 성이 없는 인간도 있을 수 없다. 즉 모든 인간에게는 성(Sexuality)이 존재하며, 성에 의해서 비로소 인간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성이 충족되지 않을 때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 상태의 평형이 상실되어 발생된 육체적 건강 문제는 생활 방식을 전제적으로 변화시킨다(Kim & Cho, 2000; Yee, 1999; Rieve, 1989).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다가 척수 손상을 받은 장애인들은 종종 장애인으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은 물론 생활 활동 범위 축소 및 생활 능력의 상실, 삶의 의미의 상실로 인해 총체적인 고통을 받게 되어(Lee, 1999), 기능적, 심리적, 인간관계 및 사회적 인 면에서 어려움을 야기 시키므로 척수 장애인들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상 실무에서나 지역사회에서 인간 존재 자체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성을 다루는 일은 매우 드물며(Kang, Ko, Suh &

Yee, 2000), 이제까지는 신체적인 기능 장애만을 중시하여 다루어, 가족관계, 사회적 인간관계, 인간존재 자체의 당혹스런 성적 변화는 무시되고 은폐되어 왔다.

이러한 척수 손상은 대부분 활동이 많은 20-40대의 젊은 층에서 빈발하고 있으며(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1997), 척수 손상을 받은 장애인들은 성 기능 장애를 동반한다. Lee & Lee(1987)에 의하면, 척수 장애인들의 80%가 15-35세의 성적으로 왕성한 사람들이며, 그들 중 70%는 최근 6개월간 어떤 형태로든 성 관계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의학적 문제점 중 30.7%가 성 문제로 나타났다. 또한 미혼이었던 척수 장애인의 12%가 손상 후 5년 내에 결혼하면서 성 기능에 관심을 가졌고, 특히 성행위 만족을 위한 방법과 기술에 더욱 더 관심을 가졌으나(Kang, Ko & Suh, 2000; Kang & Suh, 1999), 개인별 성적 관심 정도와 결혼 유무에 따라 적응 정도는 달랐다(Kang & Suh, 1999).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배해 온 유교적 문화 배경은 우리로 하여금 성에 대한 문제를 드러내어 말하기 꺼리게 하였고, 재활 의료팀에게 조차 표출하기

\* 본 논문은 2001학년도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학  
위논문임

\*\* 신흥대학 간호과 교수

어려워하며, 의료팀 조차도 성에 대한 문제 접근을 회피 내지는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자유롭게 표현하기 어려운 성은, 그에 대한 사회적 담론조차 구체적인 삶의 연관성을 떠지 못한 채 외설적으로 흐르고, 척수 장애인들의 성 문제에 대한 과학적이고도 구체적인 담론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Yee, 1997; Kim, 1996, Kim, You, Park, & Lee, 1984). 기혼의 경우 공인된 배우자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므로 성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를 할 수 있으나, 특히 미혼의 경우 공식적으로 성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성 문제는 매우 예민하고 개인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재활 현장에서의 재활 의료팀에게 조차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Yee, 1997).

척수 손상은 대상자의 독특한 성적 변화 체험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현실에 대해 당혹스러운 나머지 스스로 당면한 새로운 현실을 인정하기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조차 꺼린다. 그래서 이러한 성의 변화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장애인들의 성적 어려움을 본질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과 연구자의 뚜렷한 분리와 함께 객관적인 고찰을 지향하는 실증주의적 탐구를 벗어나 일상 세계 내에서 그들이 체험하는 생생한 경험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상학의 관점에서 질적 방법으로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을 대상으로 그들이 체험하는 성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그들의 관점에서 심도 있게 이해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간호사가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들의 심리, 정서, 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이를 근거로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들에게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장애인 성 상담 및 성 재활 프로그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척수손상을 입은 미혼남성이 체험하는 성은 무엇인가?**

## II. 문현 고찰

인간의 성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성적 행위와 신념을 위한 표현이자 대화이며, 대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Van Ooijen & Charmock, 1994). 또한 모든 행동의 근원을 이루는 힘을 얻기도 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도 한다(Jung, 1995).

이러한 성은 살아가면서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성적 주체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개인의 행동 변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Kim, H. S., 1995). 즉 성은 단순히 신체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생리 현상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구성물로서(Our Society Researcher, 1998), 자신이 대상으로 삼는 대상들, 즉 사실과 체험을 끊임없이 발명하고 재도입 및 삭제하며(Seo, 1999), 우리의 실존을 표현한다(Zanner, Choi trans. 1994).

척수 손상은 크게 경수 손상과 흉요수 손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경수 손상은 주로 C1-T1에 위치한 손상으로 사지 마비를, 흉요수 손상은 T2 이하의 손상으로 하반신 마비가 초래된다(Kim, S. C., 1995). 특히 운동, 감각 및 자율적인 기능의 소실을 초래하므로(Chicano, 1989), 척수 손상에 따른 성 기능의 형태와 정도는 성별, 손상 위치, 손상의 정도에 좌우된다. 여성의 경우 감각의 상실로 인해 꽈 minden을 느끼는 정도는 변화하지만, 성행위 능력에는 별 다른 변화가 없으나, 남성의 경우 발기 능력과 성행위에 있어 상당한 장애가 된다(Kang, Ko, Suh & Yee, 2000).

외국의 경우, Tsuji, Nakajima & Morimoto (1961)의 연구에서는 척수 손상 환자의 54%에서 발기가 가능했고 발기 기능의 회복은 80%가 1년 내에 일어났으며, 60%는 6개월 내에 일어났으며, 사정은 9%에서 가능했다. 또한 Comarr(1970)은 척수 손상 환자 중 82%에서 발기가 가능했으나 사정은 11%에서 가능했다. 그리고 Higgins(1979)은 척수 손상 환자 중 70%에서 발기가 가능했으며, 7%에서 사정 기능이 유지되었다(Kim, S. C., 1995).

우리 나라의 경우, 성 생식 기능 실태에 대한 조

사로 Kim, Park, Park & Shim(1990)의 보고가 있으며, 발기 기능이 79%에서 가능하였고, 사정은 31%에서 가능하게 나타나 구미의 보고에 비해 발기 및 사정 가능성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남성의 경우 심인성 발기를 하는데 비해 척수 손상 남성들의 경우는 척수 반사 작용에 의한 반사성 발기가 대부분이다. 경추가 손상을 입었을 경우 대부분 발기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나, 흉추와 요추 손상의 경우는 대개 반사적 발기를 경험한다 (Herayamasasi, 1991). 이러한 척수 손상의 경우 여성에게는 큰 문제가 없으나, 남성의 경우 발기-지속-사정 등의 모든 과정이 성공적이어야 하므로 어려움이 많다(Park, 1992). 그러므로 척수 손상으로 발생되는 성 기능 장애에 대해 가능한 솔직하게 상담을 하여 문제점 해결을 도와주고 토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Kang, Ko & Suh, 2000).

이러한 성 기능 장애를 동반하는 척수 손상은 성 기능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Oh, 1996), 척수 장애인은 신체 기능 변화로 인해 심리적, 정신적인 적응이 어려우며, 그로 인한 삶의 질은 더욱 저하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육체적 매력, 성교, 감각이 남아있는 신체에 집중하거나 상상을 하므로, 성 재활을 성공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Walbroehl, 1987).

Becker, Stuifbergen & Tinkle(1997)에 의하면 장애인들은 아직 성적 존재로 인식되지 못하고, 그들의 신체적 손상에만 국한해서 개별화된 인간보다는 장애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척수 장애인들이 경험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와 성 경험에서 고착된 신체적 기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성 상담에서 간호사들의 역할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Hodge, 1995). 환자의 성에 대한 건강 욕구가 간호 영역에서 부각되면서, 척수 장애인들의 성 만족정도, 영향 요인 파악, 적응 및 교육과 상담에 관한 연구도 최근 들어 활성화되었다.

Kim(1996)의 연구에 의하면, 성에 대하여 남성은 참담함, 죽음에 대한 생각, 자존감 상실, 대리만족감 등이 나타났고, 여성은 배우자에 대한 연민, 성생활 방법에 대한 무지감, 불안감, 속상함, 포기감 등이 나타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체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특히 남성의 경우 성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과 방법에 가장 관심이 높았으며 (Kang, Ko & Suh, 2000; Kang & Suh, 1999; White, et al, 1992), 나이가 젊을수록 성 만족 수준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냈다(Kreuter, et al, 1996).

또한 Lee, U. H, Lee, S. U., Choi, Park과 Song(1994)에 의하면 척수 장애인의 성생활 실태에 대한 연구에서 성생활 중요도는 11가지 중 3위로 높게 나타났으나 만족도는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자가간호 능력 중 가장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성생활(Jung, 1996)이 척수 장애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상위로 나타날 정도로 그들의 성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사회적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자신의 성적 배우자를 찾기 어렵고(Siler, 1988), 표현을 할 기회조차 제한됨으로 폐쇄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 생활 또한 등한시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그들의 심경을 보여주고 있다.

Kreuter, Sullivan와 Siosteen(1996)에 의하면 이들에게 다양한 성행위를 겪려하는 이차적인 성 감대를 개발하여 그들의 파트너에게 만족감을 주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미혼인 경우 성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기가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성적 표현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관심을 나타냈다(Kang & Suh, 1999).

또한 Kang과 Suh(1999)에 의하면 결혼 유무에 따라 척수 장애인의 성생활과 관심을 두는 영역이 다르다고 하였다. 즉 미혼인 척수 장애인인 경우 성행위 만족을 위한 방법과 기술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그 다음이 성 기능의 변화에 적응하는 순으로 나타났으나, 기혼인 경우 성 기능 변화에 배우자가 적응하도록 돕는 것에 가장 높은 관심을 나타내어 미혼과 기혼간의 성적 관심의 차이를 볼 수 있었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t=3.75$ ,  $p<0.00$ ). 또한 기혼의 경우 성적 관심이 많을수록 성적 적응과의 관계가 순 상관 관계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r=.398$   $p=0.01$ ), 미혼인 경우 성적 적응과 성적 관심과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았다( $r=.223$ ,  $p=0.01$ ). 반면에 척수 장애인 배우자의 경우 그들의 과도한 역할 및 성적인 관

계에서의 어려움과 남편 혹은 아내로서의 역할 수행의 미흡함이 지적되었으나 의사소통으로 대부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었으며, 초기 적응기에서 배우자의 역할 문제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Han & Jung, 2000; Yoo, 1999).

이렇게 척수 장애인에게 성적 존재로서의 삶은 단순한 성행위나 부부 관계 차원이 아닌 의미 있는 삶을 되찾는 성적 재활 과정이며, 그들이 경험하는 삶의 가치의 다양성을 고려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인의 적응 유형과 현재 놓여진 상황이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성 재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동시에 지속적으로 척수 장애인의 재활 동기요인을 증진시키면서, 그들의 성 재활 정보 제공 및 성생활 만족도 증가를 위해 꾸준히 탐구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척수 장애인을 위한 성 상담 및 성 재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간호 학문에서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척수손상을 입은 미혼남성들의 성에 대한 주관적인 이해와 그들의 성(sexuality) 체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귀납적이고 서술적인 질적 연구 방법으로서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Giorgi, 1985)을 적용하였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척수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의 손상 후 체험한 성을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방법을 사용한 서술적 연구로서, 척수손상 후 재활병원에 입원 했었거나 입원하고 있는 척수손상 환자 중 흡수 이하 손상을 진단 받은 20-30대의 미혼으로 손상 후 6개월 이상 경과하였고,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사고나 판단의 흐름이 명료하여 일관성이 있으며,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를 허락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

본 연구의 경우 연구에 앞서 사전 연락을 한 뒤, 먼저 관련기관장이나 간호부를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자료수집방법을 설명하고 구두 허가를 받았으며, 때에 따라 담당의사의 이해 및 동의를 구하였다. 그리고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연구자의 신분, 방문 목적,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기간 및 사적 비밀 보장 등을 설명하고 연구를 동의한 척수 장애인만을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여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연구 동의를 한 대상자에 한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료 수집 도중이라도 대상자가 연구 참여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알렸으며, 면접을 껴릴 경우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며, 자료 수집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였다.

####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1999년 11월1일부터 2000년 8월 31까지이며, 자료 수집은 심층면담,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의 허락 하에 녹음기로 녹음을 한 후 녹음된 테이프를 필사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가 구두로 연구에 동의한 뒤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연구 시작에 앞서 다시 녹음으로 연구의 동의를 재확인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면담 장소는 대상자 가정과 성 재활 상담실에서 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주로 이루어졌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간의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면담 시작 전에 연구자의 개인력을 알려주어 거부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였으며,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시작하여 어느 정도 신뢰감이 형성된 이후 심층 면담으로 이어졌다. 질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형성이므로, 이를 위해 재활 병원의 잣은 방문과 전화를 통해, 대상자의 동질감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자료 수집은 10개월간에 걸쳐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개인 면담자의 방이나 성 재활 상담소, 재활 병동 수 간호사실 및 면담자 자신의 사무

실 등, 연구 대상자가 원하는 곳에서 실시함으로써, 편안한 분위기에서 충분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진솔한 개별 면담을 실시할 수 있었다. 연구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개별 면담시의 면담 내용을 녹음하였다. 자료 정리를 위해 면담 직후 녹음된 면담 내용을 철저히 들으면서 곧바로 컴퓨터에 입력하고 주제 분석을 하였다. 먼저 면담한 자료를 여러 차례 읽으면서, 성에 관련된 문장이나 묘사 장면들을 전체 자료에서 찾아내었고, 다음 면담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미흡한 점은 메모 후 다음 면담에서 질문하여 확인하였다. 면담 간격은 연구 대상자가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여 정리할 시간적 여유를 주면서, 2주일에서 1달 간격으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를 위한 면담 질문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해 현상학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현상에 대한 질문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척수 손상을 입은 미혼 남성이 체험하는 성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척수 손상 후 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를 기본 질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통해 대상자에게 접근하였다. 변화된 성에 대해 어떻게 느끼십니까? 성적 충동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삶에서 손상 후 성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등의 질문으로 일상 생활 속에서 척수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에게 나타나는 성에 대해 접근하였다.

##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Giorgi(1985)가 제시한 분석 방법에 따라 면담 내용을 분석하였다. Giorgi가 제시한 현상학적 분석은 대상자의 기술문을 철저히 연구함으로써 생생한 경험의 의미를 밝히는데 관심을 모으는 것으로, 이 방법에서는 직관, 분석, 기술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기술한 것을 파악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진술한 모든 진술 내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한갓 진술된 전체적인 글을 읽는다. 이를 원자료 기술(Naive description)이라고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체의 내용을 이해한 뒤, 연구자는 다시 처음으로 가서, 심리학적 관점에서 “의

미 단위(Meaning units)”들을 구별해내고자 하는 구체적인 관점을 갖고 연구 자료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술문을 읽어나간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의미 단위”들의 윤곽이 잡혔을 때, 연구자는 모든 의미 단위들을 살살이 조사하고 그 안에 내재한 심리학적 통찰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낸다. 이때 연구자는 참여자의 관점에서 확인되어진 “의미 단위”에 주목하여 이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일반화한 단위를 형성한다. 이를 전형된 의미 단위(Transformed Meaning Units)라 한다. 그리고 다시 이처럼 일반화된 “의미 단위”를 연구자의 관점에서 본 의미 단위들의 종합을 통해 총체적인 시각을 부여한다. 이를 통합된 의미 단위(Synthesis of Transformed Meaning Units)라 한다.

네 번째 단계에서는 각 사례의 구조적 상황 기술(Specific Description of Situated Structure)을 통합하여 일반적 구조적 상황 기술(General Description of Situated Structure)을 제시한다.

## IV. 연구 결과

본 연구를 허락한 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는 총 9명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면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지속적인 면담이 어려웠던 1명과 대상자 나이가 43세이었던 1명 및 척수 손상 기간이 4 개월 이하이었던 1명을 제외한 6명으로 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대상자로부터 체험의 진술이 반복되는 시점인 또는 자료가 포화되는 시점인 6명으로 하였다. 대상자의 연령 분포는 23세~32세였으며, 20대가 5명, 30대 초가 1명으로 평균나이는 26.8세이다. 교육정도는 고졸 2명, 전문대 중퇴 2명, 전문대 졸 1명, 대졸 1명이었다. 가정환경은 다양했으며, 현재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는 1명이었으며, 그 외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사고의 유형은 낙상 2명, 교통사고 4명이었으며, 사고 후 기간은 평균 3년 5개월이며, 종교는 기독교 5명, 무교 1명이었다.

척수 손상 미혼 남성인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진술된 그들의 성에 대한 체험을 사례별로 구별하여 원 자료를 기술하였다. 이렇게 기술된 자료에서 대

상자의 관점에서 본 의미 단위를 구별하였으며, 연구자가 심리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찾아낸 “의미 단위”들을 구체화시켜서 대상자의 관점을 연구자 관점에서 이해한 의미 단위인 43개의 “전형된 의미 단위”로 규명하였고 그후 전형된 의미 단위들을 7가지로 통합하였다.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이 경험하는 충격적인 상황에서의 혼란이라는 통합된 의미 단위는 겨우 없음, 당황함 2가지 전형된 의미 단위를 포함하였다. “사고 나서 그냥 처음에 (중략).. 그때.. 성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울이 없었어요, 다치고 나서 바로는 그런 생각(성행위)조차 못했죠” 이들은 사고 전에 성에 대해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성이 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하여 미처 손쓸 시간조차 주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충격으로 다가왔다. 처음 경험하게 되는 손상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더 이상의 무엇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음을 볼 수 있었다.

과거 성 경험에 대한 회상이라는 통합된 의미 단위는 떠올림, 뇌새김, 잊지 못함의 3가지 전형적인 의미 단위를 포함하였다. “갸(애인)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 생활(성생활)을 했는데.., 다치기 전에는 그 성관계 (중략).. 해았기 때문에 그 기분을 잊잖아요.., 다치기 전에는 어떠한 낚자로서 (중략).. 자기의 행위에 대한 만족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 애가 유익했으니까요. 그 애가 생각 날 수 밖에 없었어요”. 사고 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여 왔었던 미혼 남성들로서, 이전에 자연스럽게 접근을 할 수 있었고, 성적 욕구 해소를 인위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없었던 그들은 과거 성에 대해 회상하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 속 자신을 그리면서 그 당시의 성에 집착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현재의 생활이 행복하지 못함을 볼 수 있으며, 그러한 과거 회상을 통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나 혹은 현실에 대한 불만족감을 벗어나려고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회상하면서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자신을 그리면서 그때의 성에 집착하고 있었다.

억제하기 힘든 충동적 성 욕구이라는 통합된 의미 단위는 관심가진, 동봉자에 대한 성적 욕구, 원함, 솟구침, 갈망함, 체험하고 싶음, 보이고 싶음, 느끼고 싶어함 등의 8가지 전형된 의미 단위를 포함하였다. “4개월 후부터 성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생각이 더 나더라고요..., 아직은 젊고 하니까 그런게 참 중요하게 봅니다”, “내 어머니 젖을 먹고 자랐는데, 아직 그렇게 맛져보고 빼아보고 싶고 어머니양도 키스해보고 싶고 막말로 어머니양 만계도.., 어머니를 볼 때 가끔마다 아득 눈으로 보는게 아니거든요., 그때 간병인 아줌마랑 난 또 해보고 싶었는데”, “내가 성 관계를 표현하면서 그 사랑하고 자구 싶구.. 자꾸 잘해주고 싶고..., 한번보고 맛이야하는데 계속 보게 되고 따라가고 싶은 충동 그정죠, 나는 지금 바흐하고 싶은데..., 자유로운 욕구가 자꾸 올라오니까.., 이제 성 관계를 갖고 싶다. 지금, 아 지금 빼버리하고 싶다, 여자를 보면 솔직히 오늘섹스나든지,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저 여자들은 저렇게 입고 나올까 이런 생각 한편으론 하면서 너무 자극이 되니까 (중략).. 막 쫓아 가지고 진짜 막 파고 들어가고 싶은 충동도 생긴 적 있어요, 한번쯤은 창녀촌에서 일단 한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어서 가보고 싶고..., 노출하고 싶다는 그런 충동이 있죠.., 얘기하는 것 자체도 어쩔 때 자극이 될 때도 있죠”. 사고로 인한 척수 손상으로 제한된 환경 안에서 거주하게 되면서, 불끈 불끈 끓어오르는 성 충동을 해소할 수 없었던 대상자는 가장 가까이 돌봐 주었던 돌봄자들을 통해서 조차 이성을 느끼려 하였다. 인간의 성은 호흡과 같은 생물학적 기능으로 본능적이며 자동적인 것이며,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요인이 합축된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의 준비는 시시 때때로 변하거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변화한다(Lee, translator, 1992). 대상자들은 육체적으로 회복되면서 점차 자신의 신체 기능 및 구조 등에 관심이 기울어지게 되면서, 자신의 변화된 성 기능에 관심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Ko, 2000).

성 욕구 억압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이라는 통합

된 의미 단위는 헛겨운, 비참함, 앤타까운, 외로움, 두려워함, 희피함, 상식감의 7가지 전형된 의미 단위를 포함하였다. “너무 억제하고 살고.. 너무 살고 살다보니까.. 이제는 나두 이러지 말자.. 나두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고 싶은 말은 하자..., 아무려면 머칠 것 같으니까? 제 갑정을 억제하고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나도 풀어야 내가 미쳐버리지 않을 거 같애요., 물입지도 안되니까 짜증나고 어.. 신경질적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학, 빨기가 되도 자위행위는 할 수 없고, 한다해도 만족은 못 느끼겠고 해서 하나님나예요”, “정상적인 성생활도 못 해가지고 결혼하기도 꺼려지고, 대변, 소변 못보고 보다 성 기능 악되고 그런건 정말 비참하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이 나를 남자로 봐줄수 있을까”, “보고 어떻게 못하니까.. 더 심상했어요, 가슴이 뛰면 뛰하는 거예요.. 표현 못하는데”, “이러한 걸 일찍 보고 이렇게 정보도 빠리 얻고 이런 저런 사연들도 많이 보고하면 나도 그 여자를 떠나보내지 않을 수 있지 않았으나, 오호지 내 생각뿐인데... 나중에 분명히 나는 (상처) 뺨을 꺼거든요, 그까.. 남자가 남자 구식을 못한거잖아요”. 인간의 본능인 성이 사고로 인해 일시적인 차단 후 다시금 서서히 인식 되어가는 성의 본능 회복을 볼 수 있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변화된 성 기능은 충격으로 다가옴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성적 욕구 해소가 안되어 회의에 빠지게 되어지는 극단적인 심리적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위축을 일으키고 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Webb, 1994), 남성의 경우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위, 몽정, 사정 등의 나타나면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데(Kim, 1995). 척수 손상을 받은 대상자들은 자위를 시도 할 때 발기가 원활하게 되지 않아 자신감을 상실케 되면서 심리적 위축은 더욱 심화된다(Ko, 200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은 자신의 성 기능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남성으로서의 성 역할 상실감을 경험하였다. 이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주위를 더욱 경계하면서, 본능적인 성적 욕망의 표출을 스스로 억제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 내동댕이쳐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성 욕구의 해소 방안 모색이라는 통합된 의미 단위는 상상함, 채취느낌, 암물 투여함, 얘기함, 글로 표현함, 비디오등 시청함, 이성과 신체 접촉함, 기구 사용함, 자위 행위함, 잠자리를 봄, 인터넷 탐색함 등의 11 가지 전형된 의미 단위를 포함하였다. “속옷을 냄새맡고 훑기도 하고 그러구 나니까 생각이 사나지더라고요, 제가 어디 나가 가지고 다른 사람 들한테 이런 얘기 못하잖아요..(중략).. 이렇게 얘기 하는 그 자체에 제가 느끼잖아요, 여자친구랑 어딜가서 그냥 키스나 가벼운 스킨쉽으로 그냥 좀 해결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남성의 성 기능 장애는 성욕, 발기, 삽입, 사정, 쾌감, 이완 등의 여러 조건하에서 한가지 이상이 결여 내지 불충분했을 경우에 발생하며, 발기 불능성은 성생활 중 75% 이상에서 삽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성 기능 장애 환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이다. 그리고 남성의 성은 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단순히 생물학적이라기보다 남성 권력의 측면을 강조하며(Jackson, 1987), 남성에 관한 용어적 측면에서 볼 때, 적극성과 권력의 이미지가 강조되었다(Few, 1997). 또한 남성이 가진 성적 욕망의 표출, 해소는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해소하여야 한다(Choi, 1995).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들이 주로 성에 대한 기능적 측면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Kang & Suh, 1999), 성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성 욕구 해소를 하고 있었다.

변화된 성 기능 인지이라는 통합된 의미 단위는 놀라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예전의 다른, 갑작적 반응 변화, 신체적 반응 변화의 5가지 전형된 의미 단위를 포함하였다. “이제 맘속으로는 자극이 되지만 심지어는 성적으로는 자극이 안된다는 거는, 전에는 그런걸 보면 흥분하고 그랬는데, 다치고 나서는 그런 갑정이 안 생기니까, 이제 생각자체가 전차 이제 조금씩 무뎌지는 것은 사실이지마, 성기 자체의 느끼이 없으니까, 직접적으로 막지고 그래야 자극이 생겨야 빨기야 되니까, 그게(빨기) 굽방 죽어버리고.. 죽어버리고, 사정 시 그게.. 오르가즘이 없어요, 막여주고 그러면 계속 빨기가 되는데 이제

그런 마사지가 없으면 다시 또 수그려드려요”, “하얀게 끈적하게 앞전에 내가 자워했을 때 소변색끼이 아니 하얀 그런게 좀 나았더라고요 아 그때 낸 솔직히 보구 놓았거든요 뺏가웠어요, 빛이 보였어요.. 낸 안나를 줄 알았거든요.. 낸 사정도 안 될 줄 알았어요, 나에게는 기적 같은거.. 그게 보였어요.. 굉장히 강력했어요, 자워 행위를 하면은 아.. 꺽꺽 씩덕 때 그 기분은 그렇게 좋을 수 없어요”. 정상적인 성은 명확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비정상적인 성은 비교적 쉽게 정의된다. 즉 자신이나 타인에게 파괴적이고, 적절한 대상을 지향하지 못하며, 일차 성기관의 자극을 배제하고, 부적절하게 죄책감, 수치심 또는 불안을 유발하며, 강박적인 경우를 말한다. 성 행동은 의존 욕구, 공격성 욕구, 지위의 과시 등 비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Sin, 1997). 또한 척수 손상은 운동, 감각 및 자율적인 기능의 소실을 초래하며, 성적 기능의 소실을 느끼게 하므로(Chicano, 1989), 달라진 자신의 심신(心身) 변화를 인지하게 하였다.

그러나 기능 소실과는 달리 성적 욕구 기능은 이전과 변함없이 척수 손상을 받은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성적 욕구를 유발시킨다(Spica, 1989). 성욕은 인간 행동과 개인의 특징 및 자존심 등으로 구성되며, 육체적 장애는 재활 과정 중의 일부분으로 고려된다(Summerville, McKenna, 1998). 척수 손상 후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총체적인 삶에 영향을 받으며, 정신적으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되어 사람들과의 관계 횟수가 줄어들므로 인해 배우자와의 관계 지속을 하기 어려워하며, 여기에서 발생된 우울한 감정은 그들이 삶의 질을 인식하는데 심오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Kreuter, et al, 1998). 이들은 무뎌진 심인적인 성적 욕구를 느꼈고 그보다 더욱 저하된 육체적인 성 기능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이전의 성 기능을 비교하면서, 달라진 성 기능의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그들의 인지 과정을 왜곡됨 없이 바라보게 하였다. 이처럼 포기했던 기능에서 사고 이전에 나타났었던 성 기능의 일부가 나타나는 것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기적을 느끼게 하였고 새로 태어남과 같은 기쁨을 표현하면서 변화를 인지하였다.

**자신의 변화에 대한 수용이라는 통합된 의미 단위는 편안해짐, 정보찾음, 받아들임, 관심 전환, 재학에 대한 의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가능성에 대한 기대의 7가지 전형된 의미 단위를 포함하였다.** “낳기가 조금 되는 과정에서 만계(성교)는 했었어요, 그때(진단결과를 들을때) 마음이.. 아~ 몸이 서서히 좋아지는 것을 느끼거든요, 성이라는게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내가 정상인들이 하는 그런 섹스보다 저전 장애자들이 저렇게 하는 섹스가 더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알게 되고 자신이 생기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그게.. 욕구가 의욕이 넘쳐요”. 삶의 질을 측정하는데 만족이 가장 좋은 지표이며(Campbell, Converse & Rodgers, 1976), 이는 기대와 성취 사이의 지각된 차이 때문이다. 만족한 성생활은 삶의 중요한 부분으로 육체적 이완의 수단 외에 의사소통을 증진시키고, 감정의 교환, 따뜻한 느낌, 유연함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되며 건강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하다(Kim, 1998; Ko, 2000). 즉 편안한 성적 심리는 성적 반응을 억압하고 성적 자아 개념과 성적 상호 관계를 손상시키는 공포, 수치심, 당혹감, 죄의식, 낙인, 잘못된 신념 등 기타 부정적인 심리적 요소가 없는 감정 상태(Irwin, 1997)로 편안한 성적 감정을 인식하는 안위의 차원이다.

척수 손상을 받은 장애인들은 자신의 현 상태를 인지하면서, 불가능할 것 같던 미래에 대해 기대하고 있었다. 이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끊임없이 궁금했던 신체적 상태에 대한 기질적인 장애를 확인한 후 오는 편안함을 통해 알 수 있었으며, 그러면 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신체적인 회복을 위한 정보를 습득함과 동시에 능동적으로 삶에 참여하여 정상인과 같은 성생활을 시도하였다. 그러므로 척수 손상을 받은 대상자들은 변화된 성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변화된 삶을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미래를 향한 의욕감, 정상적인 성생활, 자신의 가정 등을 통해 그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들의 성의 의미를 보면, 인간의 본능으로 받아들여지는 성이 손상을 받음으로 인해 받게되는 극심한 고통과 심리적 갈등을 삶의 충격을 받아들이면서 시간이 흘러 점차 회복 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은 사고 전에 자신이 표현할 수 있었던 성적 욕구를 사고 후 해소할 수 없음으로 심리적인 갈등과 혼란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이러한 갈등은 현실 속의 자신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서, 심적인 욕구와 달리 육체적인 무반응으로 터질 것 같은 답답함과 확연히 변한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더욱 좌절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러한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누군가와의 대화를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음이 면담을 통해서 확인되었으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간호 중재 방안을 제안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 결론 및 제언

성은 상호 관계 안에서만 그 존재의의를 드러낸다. 사회 속의 성은 그 자체가 이미 성 관계인 것이다. 그러므로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현재 손상을 받은 후 생활하고 있는 척수 손상 받은 미혼 남성의 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남성의 성(性)의 통합된 의미 단위는 충격적인 상황에서의 혼란, 과거 성 경험에 대한 회상, 억제하기 힘든 충동적 성 욕구, 성 욕구 억압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 성 욕구의 해소 방안 모색, 변화된 성 기능 인지, 자신의 변화에 대한 수용 등으로 나타났다.

충격적인 상황에서의 혼란은 겨를 없음, 당황함이라는 전형된 의미단위에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척수 손상이라는 충격을 받은 후 사고 초기 신체적 손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성에 대해서 미쳐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거 성경험에 대한 회상은 떠올림, 되새김, 잊지 못함이라는 전형된 의미단위에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경험의 의미는 척수 손상이라는 충격을 받은 후 사고 초기 신체적 손상에서 벗어나면서 서서히 돌이

켜 본 과거의 자신의 성에 대해 의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억제하기 힘든 충동적 성 욕구는 관심가짐, 돌봄자에 대한 성적 욕구, 원함, 솟구침, 갈망함, 체험하고 싶음, 보이고 싶음, 느끼고 싶어함이라는 전형된 의미단위에서 도출되었다. 특히 가까운 돌봄자에 대한 성적 욕구의 의미는 척수 손상을 받은 후 솟아오르는 이성에 대한 성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었던 제한된 환경에서 비롯된 결과로 생각된다.

성 욕구 억압으로 인한 심리적 갈등은 힘겨움, 비참함, 안타까움, 외로워함, 두려워함, 회피함, 상실감이라는 전형된 의미단위에서 도출되었다. 제한된 성에 대한 표현과 예측 못했던 성 기능은 대상자에게 더욱 답답함과 짜증남, 미칠 것 같음, 충족되지 않음, 실망감, 막막함, 시선을 의식하고, 아쉬워하면서, 미래의 불안함으로 위축되는 한편 자신을 그 자리에서 버리고 싶을 정도로 포기하면서 미래조차 기대하지 않겠다는 등등의 심리적 갈등을 경험하게 하였고, 남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상실감으로 타인과의 접촉까지도 피하면서 현실 속에서 자신만이 버려졌다는 비하감까지 경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성 욕구의 해소 방안 모색은 상상함, 채취느낌, 약물 투여함, 얘기함, 글로 표현함, 비디오를 시청함, 이성과 신체접촉함, 기구를 사용함, 자위 행위함, 집지를 봄, 인터넷 탐색함이라는 전형된 의미단위에서 도출되었다. 척수 손상을 받은 후 끊임없이 솟구치는 욕구 해소를 위해 노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변화된 성 기능 인지은 놀라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예전과 다름, 감각적 반응 변화, 신체적 반응 변화이라는 전형된 의미 단위에서 도출되었다. 변화된 신체적인 성적 기능은 사고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났으며, 心身이 다르게 나타나는 욕구 정도와 감각적인 변화 및 발기 등의 신체 반응 변화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한편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기능이 서서히 나타남에 놀라움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신의 변화에 수용은 편암해짐, 정보찾음, 받아들임, 관심전환, 재활에 대한 의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 가능성에 대한 기대라는 전형된 의미단위에서 도출되었다. 자신의 성 기능 장애를 수용하면서도 회복을 끊임없이 갈망하여 계속적인 검사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중요성과 삶 속에서 성의 중요함을 재인식하면서 점차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함께 자신의 미래를 재 설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미래의 배우자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과 더불어 자신의 성 기능 장애에 대해 담담히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폭발적인 짚음을 발산하는 시기에 몰아친 사고는 비관을 앞세우기 전에 좌절의 늪 속으로 빠지게 하였다. 그토록 가리고 싶었던, 버리고도 싶었던 성(sexuality)은 심연 속에서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으며, 제한된 환경 속에서 빼겨리게 느껴야만 했던 짚음과 성은 거울 곳 비춰진 자신을 보면서 더욱 좌절하게 만들었고, 벗어나기 위해 허공을 허우적거리던 손길은 그들에게 이성에 대한 감정을 가까운 돌봄자에게 조차 느끼게 하였다. 그들의 발자락을 붙잡고 놓이주지 않았던 성 욕구는 남성성의 상실을 느끼게 하였고, 성 정체감마저 불신하기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내면(心)에서 끓어오르는 짚음은 그들로 하여금 성 욕구 해소에 대한 의욕을 부추겼고, 사고 직후 외관상으로는 육체적 장애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였던, 자신의 변화된 성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자신을 발견하였다. 자신의 변화된 성에 적응을 하면서 점차 자신을 추스리기 시작했다. 능동적으로 기능 회복 가능성과 자신의 미래 생활의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자신도 정상인과 같은 성생활을 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면서 점차 사회 속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자 한다.

첫째, 척수 손상을 받은 미혼 및 기혼자와 그들의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성 상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으로 여성에게 더욱 폐쇄적인 성에

대해 여성 척수 장애인들이 체험하는 현상을 제시할 수 있는 후속 논문이 지속되어야 한다.

세째, 정부 차원에서 만남의 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척수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네째, 척수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성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Reference

- Becker, H., Stuifbergen, A., & Tinkle, M. (1997). Reproductive health care experiences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 a qualitative study, *Arch Phy Med Rehabil*, 78, 26-33.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 Chicano, L. A. (1989). Humanistic aspects of sexuality as related to spinal cord injury. *J Neurosci Nurs*, 21(6), 366-9.
- Choi, S. O. (1995). *Korea Women Philosophy*, Han Ul. 26-27.
- Comarr, A. E. (1970). Sexual function among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Urol Int*, 35-134.
- Few, C. (1997). The Politics of sex research and constructions of female sexuality: What relevance to sexual health work with young wom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615-625.
- Giorgi, A. (1985).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Duquesne. 1-85.
- Han, K. S., & Jung, Y. K. (2000). The Study on the Sexual Experience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 Spouse. *Qualitative Research* 1(2), 109-124.
- Herayamasasi.(1991). Guon, D. Y., & Na,

- U. H. translator.(1994). *Sexuality and Wedding of Disabilty*. Elmen.
- Higgins, G. E. (1979). Sexual reponse in spinal cord injured adults : A review of the literaturel.*Arch Sex Behav.* 8-173.
- Hodge, A. L. (1995). Addressing issues of sexuality with spinal cord injured persons. *Orthopadic Nursing*, 14(3), 21-24.
- Irwin, R., (1997). Sexual health promotion and nurs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5, 170-177.
- Jackson, M. (1987). *Fact of Life or the eroticization of women's oppression?: Sexology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heterosexuality in the Cultural Construction of Sexuality*(Caplan P. ed.). Tavistock, London.
- Jung, J. M. (1995). *Sexuality of Man*. Hyundae Literature, 8.15. 308.
- Jung, J. Y. (1996). *Assess the Characteristics of Disease, Self-Care Ability of Client for Home Health Care*. The National University of Pusan. Thesis of Master.
- Kang, H. S., & Suh, Y. O. (1999). A Comparative Study on the Sexual Interest and Sexual Adjustment between the Unmarried and the Married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2), 176-183.
- Kang, H. S., Ko, J. E., & Suh, Y. O. (2000). Model Construction of Seual Adjustment of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4), 1018-2032.
- Kang, H. S., Ko, J. E., Suh, Y. O., & Yee, O. H. (2000). Sexual Adjustment Process of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y.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3(1), 80-97.
- Kim, H. S. (1995). Human and Sexuality. Eedtec.
- Kim, J. J., You, J. S., Park, J. W., & Lee, Y. R. (1984). A Study of Sexual Rehabilitation with Paraplegia Patients. *The Yon Sei Journal of Nursing*, 8, 1-26.
- Kim, S. C. (1995). *Diagnosis and Treatment of Erectile Dysfuction*. Ilchogak. 47-57.
- Kim, S. G., Park, J., Park, W. H., & Sim, H. B. (1990). A Suvery of Sex Reproduction Fuction in Male with Spinal Cord Injury. *The Korean Uurological Society*, 31, 729.
- Kim, Y. H., & Cho, B. H. (2000). A Study on the Sexual Adjustment and Quality of Life in Married Men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 27-42.
- Kim, Y. H. (1996). A Case Study about Sexual Experience of Spinal Cord Injured Patients. *Clinical Nursing Research*, 2, 219-250.
- Ko, J. E. (2000). *Sexual experience of man with cervical cord injuries and his wives*, University of Kyung Hee. The Thesis of Doctor
- Kreuter, M., Sullivan, M., & Siösteen, A (1996). Sexual adjustment and Quality of Relationship in spinal Paraplegia : A Controlled Study. *Archives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7(6), 541-548.
- Kreuter, M., Sullivan, M., Dahllof, A. G., & Siösteen, A. (1998). Partner relationships, functioning, mood and global quality of life in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traumatic brain injury. *Spinal Cord*, 36(4), p.252-61, 50 ref
- Lee, S. J. (1999). Korea Spinal Cord. The

- Korean Spinal Cord Disability Association, 1st, 3.
- Lee, S. U., & Lee, K. O. (1987). A Survey of Sexuality with Spinal Cord Disability. *The Journal of Rehabilitative Medical Association* 11(1), 55-59.
- Lee, U. H., Lee, S. U., Choi, I. S., Park, S. G., & Song, B. D. (1994). A Survey of Sexuality with Spinal Cord Injury Patients. *The Journal of Rehabilitative Medical Association*. 18(4), 801-808.
- Lee, Y. S translator. (1992), Reinisch, J. M., & Beasley, R. (1990). *The Kinsey Institute New Report on Sex*. Haseo.
- Oh, B. H. (1996). Sexual Rehabilitation with Spinal Cord Disability. *Medical Report*. Jan. 1-9.
- Our Society Research.(1998). *Sexuality & Present Society*, Jungrimsa.
- Park, C. I. (1992). Rehabilitative Medicine & Spinal Cord Injury.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35(9), 1101-1107.
- Rieve, J. E. (1989). Sexuality and the adult with acquired physical disability.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4(1), 265-276.
- Seo, D. J. (1999). *To be Sex revolution, To be Superiority, To be strategy*. The Literature & Thought, 28(4), 318.
- Shin, J. H. (1997). *Human Behavior Science*. Seoul : Yon Sei University press.
- Siler, A. (1988). A counsellor of the disabled talks about sexuality and disabilities, In N.W. Denney & D. Quadagno. *Human Sexuality(pp. 403)*. ST. Louis: Times Mirror/Mosby college Publishing.
- Spica, M. M. (1989). Sexual counseling standards for the spinal cord-injured. *J Neurosci Nurs*, 21(1), 56-60
- The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1997). *Neurosurgery*, 2nd.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press.
- Tsuji, I., Nakajima, F., & Morimoto, J. et al. (1961). The sexual function in patients with spinal cord injury. *Urol Int*. 12-270.
- Van Ooijen, E., & Charmock, A. (1994). *Sexuality and patient care : A guide for nurse and teachers*. London: Chapman & Hall.
- Walbroehl, G. S. (1987). Sexuality in the handicapped. *Am Fam Physician [On-line]* 36(1). 129-133.
- Webb, C. (1994). *Living sexuality issue for nursing and health*. Scutari Press.
- White, M. J., Rintala, D. H., Hart, K. A., Young, M. E., & Fuhrer, M. J. (1992). Sexual activites, concerns and interests of men with spinal cord injury. *Am J of Physical Medicine & Rehabilitation [On-line]* , 71(4), 225-231.
- Yee, O. H. (1997). *Sexual rehabilitation nursing for with spinal cord injury*. The University of Newcastle. Thesis of Master.
- Yee, O. H. (1999). Sexual Rehabilitation of Physical Disabilities Human as Role of nurse.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Spring Academy of Nursing*. 37-45.
- Yoo, Y. S. (1999). *The Problems of Couple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uple Relation Improvement Program*. The University of Soong Sil. Thesis of Doctor.
- Zanner, R. M. Cheo, K. H. translator. (1994). *The Problems of embodiment*. Ingansarang.

## Abstract

### Sexuality of Unmarried Males with a Spinal Cord Injury

Han, Kyoung-S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done to explore and to describe, from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the sexual experience of unmarried males with a spinal cord injury. The methodology used in this study was the phenomenological method. Researcher conducted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ith persons who had a Spinal Cord Injury. Six male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e study. The data were gathered from November 1999 to August 2000. The finding which emerged from this phenomenological study are as follow: "Confusion state in shocking situation", "Reflection on past sexual experience", "Irresistible impulsive sexual desire", "Psychological conflict caused by suppression

of sexual appetite", "Groping for a solution to sexual desire", "Recognition of changed sexual function" and "Confirmation of changed self".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 The sexuality mankind owns is the criteria of original and common difference in the society of mankind through the categorization of male and female into dichotomy. In fact, the mankind as an social animal is the existence by the sexuality, for the sexuality and of the sexuality. The sexuality has the meaning only within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s. The sexuality has the meaning only in the inter-relationship and the sexuality itself in it is already the sexual relationship. Therefore, for the better life of the participants with the spinal cord injury, further understanding of the sexuality of the unmarried male with spinal cord injury is required.

**Key words :** Spinal Cord Injury,  
Phenomenology, Sexuality

\*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Chung Ang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eon Kang Chung, RN.,  
Ph. D.